

하반기 닭고기 수급 및 가격 전망

2013년 닭고기 공급과잉이 예견된 가운데 '종계 감축'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큰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5월말 현재 닭고기 수요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증가요인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산지가격이 전년 대비 낮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고에서는 상반기 동향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2013년 하반기 육계산업을 조심스레 전망하고자 한다.

1. 2013년 상반기 동향

2013년 상반기 육계산업의 가장 큰 화두는 '종계 감축'이었다. 2013년은 육계 사육마릿수 증가로 닭고기 공급과잉이 예견되었다. 따라서 종계감축은 수급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산업전체의 강력한 의지이자 탈출구였다.

그러나 1단계 감축사업은 시행이 늦어졌으며, 목표치를 밑도는 수준에서 종료되었다. 더욱이 감축사업의 핵심이었던 2단계 종계 감축사업은 무산이 되었다. 감축사업의 순수한 의미는 퇴색되었고, 엄청난 환우계군 증가라는 부작용만을 남기고 막을 내렸다.

2013년 1~4월 육용 종계 사육 마릿수를 살펴보면, 3월 1차 종계 감축사업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월 종계 사육 마리수는 전년보다 6.5%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4월 병아리 입식이 증가한 것과 1~4월(감축사업이 시행된 3월 제외) 육용 종계 도태마릿수 감소에 기인한다.

업계의 노력과 반대 방향으로 흘러간 육용 종계 증가라는 결과는 2013년



김형진 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하반기 뿐만 아니라 2014년까지 육계산업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1~5월 도계 마릿수는 전년에 비해 감소했다. 이는 육계 산지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1월 병아리 입식 감소로 인해 2월 도계 마릿수가 전년 동월보다 14.5% 감소했고, 2월 병아리 가격 상승으로 일반 유통업체의 병아리 입식 감소로 3월 도계 마릿수도 감소했기 때문이다. 5월에는 3월 육용종계 감축으로 인한 병아리 생산 공백으로 도계 마릿수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1~5월 도계 마릿수는 전년 대비 3.1% 감소한 2억 9천 9백만 마리였다.

닭고기 수요는 전년보다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닭고기 수요를 가정내 닭고기 구매량으로

살펴본 결과, 1~4월 닭고기 구매량은 전년 동기간 대비 6.1% 감소한 1,58kg으로 나타났고, 4월 닭고기 구매량은 2012년 4월보다 12.5% 감소한 1,54kg으로 나타났다. 닭다리를 제외한 모든 부위의 구매량도 감소세로 전환되어 닭가슴살 9.9%, 닭날개 21.7%, 닭한마리는 4.7%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음식점 소비실태 조사 결과, 2013년 1분기 음식점 월 평균 닭고기 구입량은 24.3kg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8.6%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닭고기 수요는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닭고기 공급 감소 영향이 더욱 크게 나타나 1~5월 육계 평균가격은 1,786원/kg으로 전년동기간보다 1.8% 상승했다. 그러나 평년보다는 6.4% 하락한 수준이다.

〈표 1〉 육용 종계 사육마릿수 동향

(단위 : 천마리)

구분	1월	2월	3월	4월
2013년	6,638	6,841	7,038	7,410
2012년	6,370	6,368	6,683	6,957
증감률(%)	4.2	7.4	5.3	6.5

※주 : 2013년 4월 종계 사육마릿수는 농업관측센터 추정치

※자료 : 육계 수급예측 기초자료, 대한양계협회

〈표 2〉 도계 마릿수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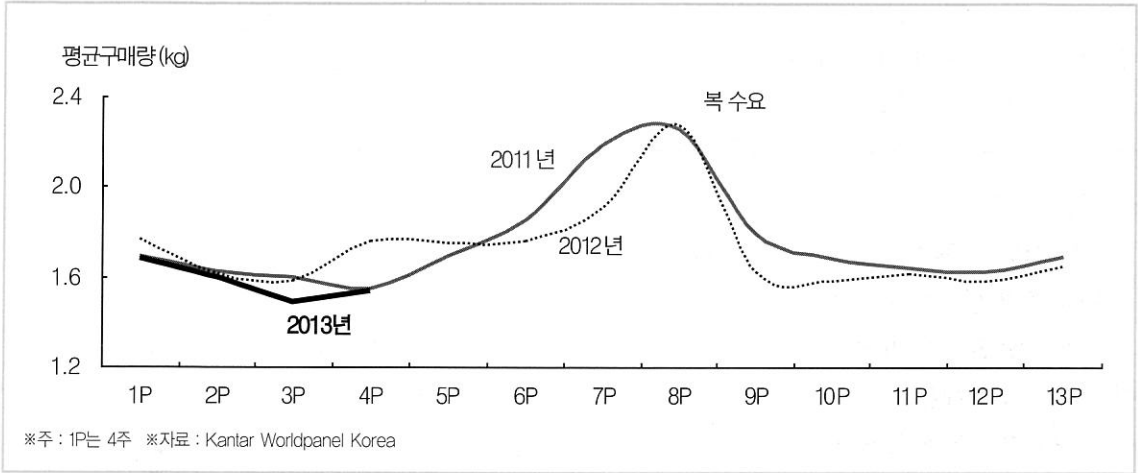
(단위 : 만 마리)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합계
2013년	6,033	4,775	5,685	6,197	7,160	29,850
2012년	5,887	5,588	5,875	6,094	7,350	30,794
증감률(%)	2.5	-14.5	-3.2	1.7	-2.6	-3.1

※주 : 2013년 5월 도계 마릿수는 농업관측센터 추정치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특집 ▶ 2013년도 하반기 계육산업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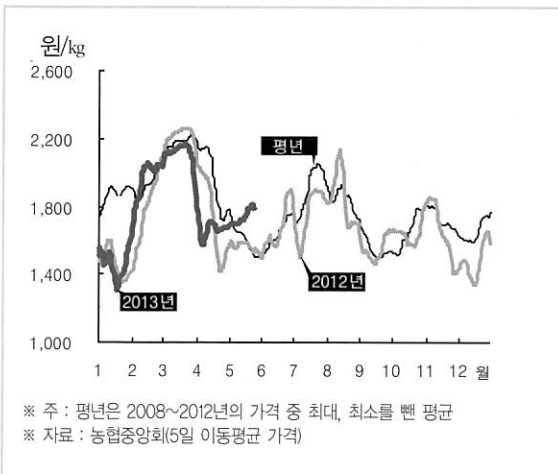


〈표 3〉 가구당 평균 닭고기 구매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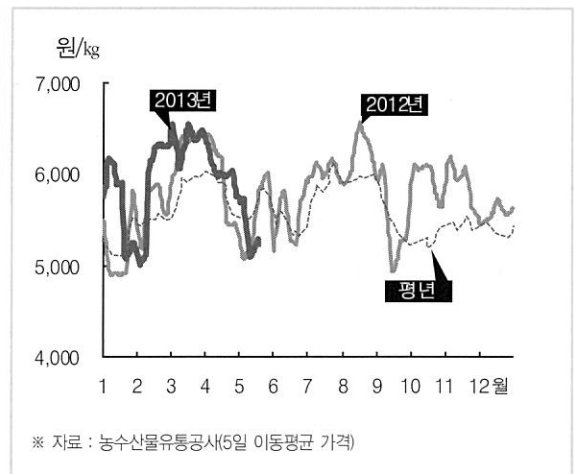
닭고기 소비자 가격의 경우에도 산지가격과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 1~5월 평균 닭고기 소비자가격은 전년보다 2.9% 상승한 5,865원/kg이었다.

2. 2013년 하반기 사육 및 수급 전망

2013년 1~3월 육용종계 병아리 입식 마릿수는 145만 마리로 전년 동기간보다 23.5% 감소했다.



〈표 4〉 육계 산지가격 동향



〈표 5〉 닭고기 소비자가격 동향

〈표 5〉 병아리 생산 잠재력 지수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2013년	109.8	104.8	97.0	93.9	92.4	100.4
2012년	103.7	101.0	95.6	96.5	93.2	102.1
증감률(%)	5.9	3.9	1.5	-2.7	-0.9	-1.7

※자료 : 농업관측센터 추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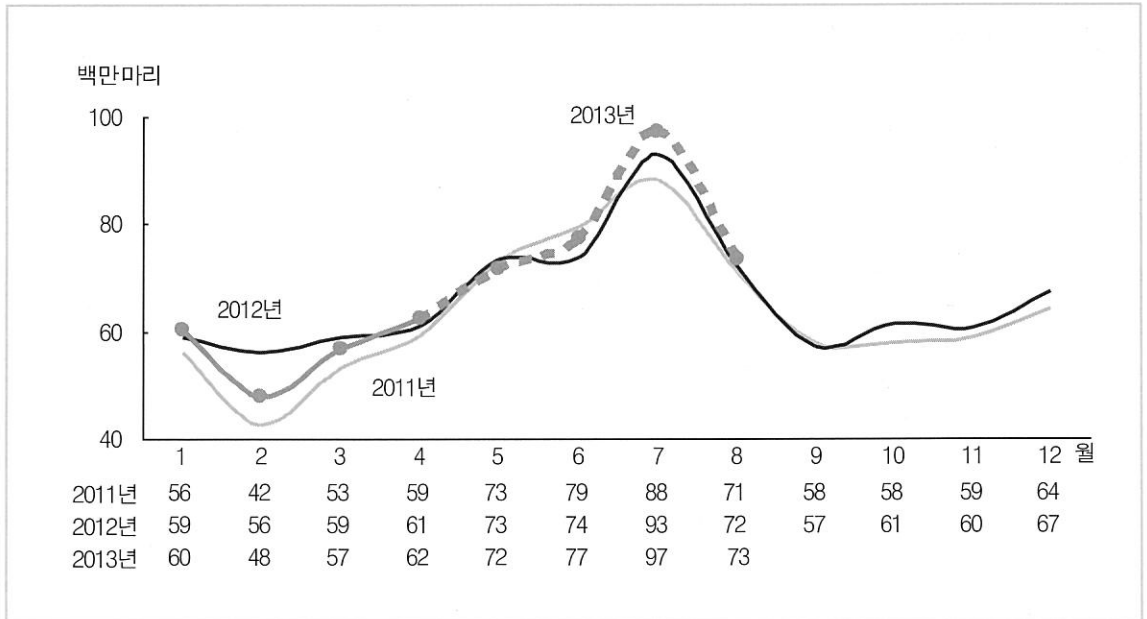
그러나 4월 병아리 입식 마릿수는 82만 5천 마리로 전년동월 대비 9.1% 증가했다.

육용종계 병아리 입식 자료를 이용하여 병아리 생산잠재력을 추정한 결과, 작년 11월~금년 1월 육용종계 병아리 입식 마릿수는 전년보다 감소하여 병아리 생산잠재력 상승폭은 둔화되었지만, 8월까지의 여전한 전년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3월까지 지속적으로 병아리 입식이 감소하여 9월부터는 병

아리 생산잠재력 지수가 전년보다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4월 육용종계 배합사료 생산량이 전년 대비 0.8% 증가한 24,215톤으로 나타났다. 배합사료 생산량, 종계 입식 및 도태를 이용하여 종계 사육 마릿수를 추정한 결과, 4월 종계 사육 마릿수는 전년 동월보다 6.5% 증가한 741만 마리로 추정된다.

종계 사육마릿수가 증가하고 환우계군이



〈표 6〉 도계 마릿수

병아리 생산에 가담하면서 5월 병아리 생산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며, 병아리 생산 증가는 도계 마릿수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6월 도계 마릿수는 전년보다 4.5% 증가한 7,724만 마리로 예상되고, 병아리 생산 잠재력이 높아 7월 도계 마릿수는 최소 9,704만 마리, 8월은 최소 7,342만 마리로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9월부터 병아리 생산잠재력이 전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2012년 하반기 종계도태를 감안하면, 올 하반기 종계도태가 전년보다 증가해야만 병아리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판단된다.

종계도태가 전년 수준이하에서 이루어진다면, 병아리 생산량 증가로 인한 도계 마릿수 증가로 2012년 하반기보다 더한 불황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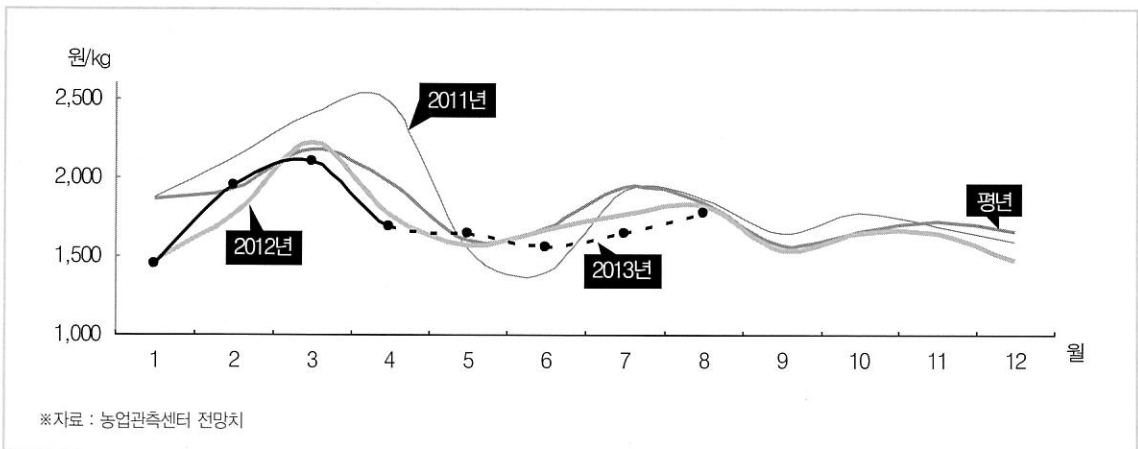
겪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상반기 닭고기 소비 감소가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7~8월에는 작년에 있었던 올림픽 수요가 소멸된다. 2013년 하반기에는 전년에 비해 추가적인 증가요인이 없어 닭고기 수요는 전년보다 약보합으로 전망된다.

3. 2013년 하반기 가격 전망

2013년 6월부터 닭고기 공급량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수요는 전년에 비해 약보합세가 예상되어 육계 산지가격은 전년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육계 산지가격은 1,600원/kg 이하로 전망되고, 연중 닭고기 수요가 가장 많은 초복과 중복이 있는 7월에는 1,650원/kg 이하,



〈표 7〉 2013년 육계 산지가격 전망

2013년 하반기에는 복병아리 과잉생산으로 최악의 복 경기가 우려되고, 그 이후에도 공급량 급증으로 인한 가격 약세가 2013년 하반기를 지나 2014년까지 이어질 기세이다. 이러한 우려와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육계산업 전반에 걸친 노력과 희생이 요구된다.

말복이 있는 8월은 1,650원/kg 이하로 전망된다.

8월 이후에는 하반기 육용종계 도태 정도에 따라 육계 산지가격이 좌우될 것으로 판단된다. 종계 감축에 대한 육계산업의 결단과 조속한 시행이 없다면, 육계 산지가격은 전년수준 이하에서 형성될 것으로 판단된다.

4. 맺음말

2013년 하반기에는 복병아리 과잉생산으로 최악의 복 경기가 우려되고, 그 이후에도 공급량 급증으로 인한 가격 약세가 2013년 하반기를 지나 2014년까지 이어질 기세이다.

이러한 우려와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육계산업 전반에 걸친 노력과 희생이 요구된다.

일시적인 종계 도태는 장기적인 불황을 피할 수 있는 대안이 되지 못한다. 이제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종계 병아리 입식에서

닭고기 공급량까지 계획적이고 철저한 조절이 필요한 때이다.

또한 위축된 닭고기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상품개발과 우리 닭고기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회복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육계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산업에 관련된 모든 이들의 노력과 희생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과 희생의 결실로 2013년 하반기 육계산업의 우려를 말끔히 해소할 수 있길 바라며 이 글을 마친다. 